



전 남편 살해 “계획적”... 고유정 무기징역

제주지법 어제 선고공판...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선고
재판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 모든 책임 전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전적으로 맺어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

의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때 가족이었던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성장과정에서 마주친 충격을 가능하기 힘들다”면서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고유정을 향해선 “피고인은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전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결국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피고인이 치밀하게 (의붓아들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러 사망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재판장이 무기징역 주문 후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담담한 표정으로 “없다”고 말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형을 예상했던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전 남편 유족 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은 너무 과소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무참히 살해되고 그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범행에 상응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 남편 측 변호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지 못한 이런 사실이 너무 개탄스럽다”면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부당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동 수사 부실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 경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왜? 범행 입증 충분한 증거 부족 결정적

재판부 “아이 아버지에게 수면제 먹였다고 단정 못해”

고유정이 사형을 피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살인죄도 간접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지만 간접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사실에 비춰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만한 압도적 증명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우선 고유정이 현 남편을 깊이 잠들게 할 목적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밤)현 남편이 피고인에게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피고인이 수면제가 든 차를 현 남편에게 마시게 하려면 피고인이 (알약으로 된)수면제를 미리 가루로 만들어 놓았거나 곧바로 가루로 갈아야 한다”면서 “집 구조상 현 남편이 식탁의자에 앉아 흰티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답하게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가 현 남편에게 차를 주기 전에 수면제 효능, 발현 시기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 범행계획을 상세하게 검색한 것과 배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가 잠을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는 동안 현 남편의 몸통이나 배에 눌러 숨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은 도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라면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는데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카락 가스를 눌러 호흡이 어렵게 됐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시반 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반을 근거로 사건 당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숨졌다는 검찰 측 주장을 단정할 수 없고, 또 검찰이 제시한 사망 추정시각에 고씨가 깨어 있었다는 정황은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아니라고 봤다.

이상민기자

“석식영양사 근무 시간 늘리고 상시 근무 전환을” 교육공무직노조 기자회견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조가 도내 고등학교에서 저녁 급식을 담당하는 석식 영양사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상시근무로 전환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소속 모든 조리실무사는 3월 1일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확대된다”며 “하지만 석식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의 근무시간은 여전히 7시간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식 영양사는 근무시간이 부족해 초과근로가 일상이다”며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선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예산이 부족해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무료 노동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상시 근무를 하지만 유독 석식 영양사만 방학 중 비근무로 돼 있다”며 “도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석식 영양사의 차별을 없애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오징어 말리는 어촌 포근한 날씨를 보인 20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에서 오징어 말리기 작업이 한창이다.

강희만기자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유보

도 “교통정리 활동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일부구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보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도는 한라산 탐방로약제와 연계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4일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도내 관광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2일 한라산 탐방로약제의 한시적 중단을 밝혔고, 이에따라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 단

속도 유보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유보된 한라산 탐방로 약제 재시행 또는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주·정차 위반 단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유보하지만 교통정리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은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김재호 전 제주도의회의장 별세

김재호(사진)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김 전 의장은 서귀포시 하원동 출신으로 오현고(1회)를 졸업했다. 1956년 중문면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및 중앙위



원, 신민당 지방자치제 추진 제주지역 준비위원장, 민주화 쟁취 국민운동 제주본부 공동 대표, 제15대 대통령후보 김대중 제주선거대책본부장, 새정치국민회의 제주도 부지부장, 제6대 제주도의회 의장, 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빈소는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일포는 오는 23일이다.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 국제보청기 (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청 ● 제주대 ● CGV ● 광양사거리 ● 와이드스 보청기 ● 화북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그랜드 보청기

정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 브랜드 50~60%대할인!!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보청기 착용 그랜드 첫 방문 고객 배터리 무료 증정(25,000원 상당)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 제주소방서 ● 제주중앙여고 ●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